

< 한국방송촬영인협회 성명서>

-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방송 취재 현장의 폭력과 폭행을 규탄한다.
- 박상학 대표의 SBS취재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SBS모닝와이드 취재중이던 SBS PD와 촬영감독,오디오맨이 박상학대표로부터 주먹과 벽돌의 폭행에 노출된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촉구한다.

또한 성실하고 열정적인 취재 활동에 임하는 취재진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완벽한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땀 흘리는 취재원들과 취재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SBS PD협회, SBS 촬영인협회와 연대하여 당당하게 행동하고 협조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취재진의 빠른 쾌유와 심리적 안정을 바라며 사건이 합당히 처리되길 요구한다.

2020. 06. 26

한국방송촬영인협회